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양 진 건*

목 차

1. 제주도 여학교와 개신교계 여학교
2. 신성여학교
  1) 설립
  2) 선생
  3) 교사(校舍)
  4) 학생
  5) 교육내용
  6) 폐교
3. 마치며

1. 제주도 여학교와 개신교계 여학교

제주교육사에서 라크루(Lacrouts, 具瑪瑟)[1] 신부는 제주도 최초의 신식 사립여학교인 晨星女學校를 설립한 존재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 되어야할 인물이다. 그의 제주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1909년 제주도 최초의 신식 사립여학교인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비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소규모로 운영되던 여학교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뮈텔 주교에게 보내는 1903년의 라크루 신부 편지글 가운데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 사직을 하고 제 집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2]라는 구절이 그것을 입증한다.

---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부교수

1) 그는 1871년 5월 8일 프랑스 바욘느(Bayonne) 교구의 보르드에서 태어나 1890년 9월 16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으며 1894년 7월 1일 사제로 서품 되었다. 같은 해 8월 29일 한국 선교를 위하여 출발하여 10월 23일에 도착하였고,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 뮈텔(Mutel, 閔德孝) 주교는 그를 전라도에 보내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했으며 전라도에서 5년을 보낸 뒤인 1900년 5월 4일 한국인 김원영(아우구스티노) 신부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2)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3집,『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175. 여기서 "La supérieure du couvent de Che-Ju"를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를 "제주도의 여학당 담당자" 또는 "책임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황으로 보아 무방할 듯 하다.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라고 하면 오늘의 형식교육 체제를 연상하여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라크루 신부가 말하는 제주도 여학교[3]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라쿠르 신부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교리문답을 위한 비형식의 소규모 학당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것은 결국 라쿠르 신부가 신성여학교를 설립하기 6~7년전에 이미 여학교가 설립되었다는 말이 되며 신성여학교는 그 여학교의 연장선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이야 어떻든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것이 비록 비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아들을 위한 모종의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함께 주목을 요하는 또다른 사안은 1909년 신식 사립여학교인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인 1908년에 개신교계 여학교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08년 서귀포 홍로 본당에서 사목을 하던 타케(Taquet, 嚴宅基)[4]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곳 제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엽전도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5] 라고 하였음을 볼 때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타케 신부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계의 여학교가 정확히 어떤 학교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왜냐하면 당시의 각종 학교설립[6]에 따른 정부나 제주도 관계 자료에는 제주도 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계 여학교 역시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開化期라고 불려지는 이 시기에 제주도에 개설된 학교를 보면 개량서당 수준의 開成學塾이나 新明私塾, 進英私塾, 義明學校, 漢一學校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테스탄트계 여학교라고 지목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다.

---

3) 제주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3집에 실려있는 사진들 가운데 「라쿠르 신부가 설립한 신성여학교 1902년경 모습」이라는 제하의 사진이 라쿠르 신부가 말했던 제주도 여학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성여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9년이기도 하거니와 대개의 신성여학교 관련 사진에서 학생들과 찍은 사진에는 거의 수녀나 신부가 함께 찍혀 있기 마련인데 이 사진에는 다만 나이 많은 여자 한사람이 찍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녀가 라쿠르 신부가 지적한 여교장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이 때 제주도 여학교의 학생 수는 대략 27명이다.

4) 그는 1873년 프랑스 루르드 지방에서 출생한 후, 1897년 파리 외방전교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10월 28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리고 곧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8년 1월 조선에 입국하였다. 서울에 입성한 그는 장호원 본당에서 시골 선교사의 생활과 조선말을 잠시 익힌 후 부산 본당의 주임신부로 임명되었으며.1899년 초대 진주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고 1900년 6월 29일 본당을 마산포로 옮기고 그곳에서 사목하던 중 1902년 4월 20일 제주 한논 본당의 제3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제주 부임 이후 타케 신부는 우선 한논 본당을 홍로로 이전하였는데 이후 한논 본당은 현 서귀포 복자 수도원 자리인 西烘里로 옮겨짐과 동시에 烘爐 본당으로 개칭이 된다. 이어 梁始中 구타 사건을 겪는가 하면 정의 공소를 위한 집을 매입하고, 신축교안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다. 특히 타케 신부는 식물채집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그가 채집하여 프랑스로 보낸 식물 중에서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제주 왕벚꽃나무는 아주 유명하다.

5)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4집,「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제주교구,1997,p.155.

6) 拙稿, 開化期 濟州島 敎育史 硏究,「濟州島史硏究」,第4輯, 1995, pp.57-79,參照.

이로써 보건대 이 여학교 역시 개신교계 목사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형식의 성경공부를 위한 비형식의 소규모 학당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이야 어떻든 천주교계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그것이 비록 비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아들을 위한 모종의 개신교계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교육사에서 종전까지는 신성여학교를 제주도 최초의 여학교라고 보아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성여학교를 적어도 제주도 최초의 여학교라고 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재고의 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적 의미의 형식교육 차원에서 신성여학교가 제주도 최초의 신식 사립여학교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식 · 비형식의 기준이라는 것이 학교 또는 교육의 규모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당국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분류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 여학교나 개신교계 여학교라는 것이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한국 근대교육의 맹아로 주목되고 있는 개량서당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으로서 신성여학교의 태동을 가능케 한 제주도 여성교육의 맹아로 제주도 여학교와 개신교계 여학교를 평가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7]

2. 신성여학교

1) 설립

라쿠르 신부가 신식여학교를 세워야 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은 부임 초기 부터였던 것 같다. 제주도 여학교의 존재가 그것을 반증하거니와 특히 라쿠르 신부의 여학교 설립 의지는 당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근대학교 설립운동과 결코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즉 제주군수 尹元求에 의해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1907년 1월에,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가 동년 7월에 각각 개교를 하였기 때문에 신식여학교의 필요성을 더 느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08년 타케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하나 갖게 될 것입니

7) 이는 제주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일제의 시혜적 차원에서 형성되었기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한 근대교육의 맹아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는 중요한 시사이다. 화북초등학교의 개교가 화북의숙이라는 민간위주의 순수 자생적 개량서당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신성여학교의 경우는 비록 라쿠르 신부라는 가톨릭세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역시 개량서당류의 학교를 근거로 근대여성교육기관으로 발전을 보였다는 사실은 또한 주목을 요한다. 나아가 제주도 여학교가 추측대로 라쿠르 신부가 설립한 것이라면 한국교육사에서 종교계에 의한 개량서당과 근대학교를 연계 · 설립한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8] 라고 언급한 것만을 보더라도 1909년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적어도 1년전부터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사회적 실정에 맞는 여학교 교육이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자 뒤늦게 여아들을 위한 교육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라쿠르 신부의 여학교 설립 계획은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은 개신교의 이화학당처럼 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로 같은 학교 내에 여학교와 남학교를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제주도의 경우 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세우고자 했던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라쿠르 신부는 뒤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회닿는대로 남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러한 절차야말로 가톨릭 교육운동의 전형적 수순이었다.

여러모로 추정해볼 때 사설학당 수준의 제주도 여학교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시점에 주변에서 근대적 초·중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라쿠르 신부는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근대적 의미의 신식여학교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朴泳孝였다. 박영효는 고종의 사위로서 1884년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그 뒤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었다가 고종 폐위 음모로 다시 일본으로 망명, 1907년 귀국하여 용서를 받고 이완용 내각의 궁내대신이 되었으나 대신 암살 음모로 체포되어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당대의 거물 정객이다.

박영효의 도움에 대해 라쿠르 신부는 「관대한 한 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에 여학교 설립의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9] 라고 뮈텔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 밝히고 있다. 그런가하면 뮈텔 주교의 1909년도 보고서에도 「제주부에 있는 라쿠르 신부는 여학교 하나를 얼마 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일에서 라쿠르 신부는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그 같은 일에 희사를 아끼지 않는 한 비신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정사에 진저리가 나서 스스로 이 섬에 은퇴하여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는 바로 선왕의 사위이고 전 영의정이었습니다.」[10]라고 밝히고 있다.

박영효는 급진개화파의 한사람으로 일본 근대화 사상의 원조인 福澤諭吉의 사학육성과 사학중립론을 영향받고 "소·중학교를 설치하여 6세 이상 남녀로 하여금 모두 就校 受學케 할 것을"[11]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라쿠르 신부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쿠르 신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영효는 학교 설립의 의지를 실현시켜 준 사람이며, 박영효의 입장에서

8)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53.

9)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1.

1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247.

11) 朴泳孝, 「開化上疏文」

본다면 라쿠르 신부는 자신의 교육계몽주의 사상을 실천하게 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차가 실리와 명분을 교환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의지를 부추긴데는 제주도 여학교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의 영향도 컸다. 앞에서도 언급했었듯이 「이곳 제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12]라는 타케 신부의 편지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가하면 개신교 측에서 선교의 방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지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점[13]도 한몫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신교는 정부의 근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정열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의식이 라쿠르 신부와 같은 가톨릭 선교사들을 자극하였던 예[14]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든 선교와 함께 교육사업에 착안하여[15] 학교 설립 계획이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계획은 1909년 9월부터 본격화되는데 '학교는 수녀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여학생들을 개종시키는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09년 10월 18일 허가[16]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허가조건은 형식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 조건을 단것은 1901년의 신축교난을 의식한 정부측의 처사가 아니었던가 사료된다.

그런데 신성여학교의 개교는 한국가톨릭교육사는 물론 한국교육사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개신교의 일반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던 광범위한 교육운동에 비할 바는 못되었지만 당시 가톨릭의 교육운동은 한국교육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이었던 1855년의 충북 제천의 베론신학당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신성여학교의 개교 또한 그러한 계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내에서도 신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대구대목구(교구)내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샬트로 성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대구, 제주 두 곳이었는데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이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설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여러

12)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55.

13)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23.

14) "서울의 우리 학교에는 40-50명의 학생을 유지하고 있는데 … (그러나) 서울 거리의 수많은 미국 목사들은 불행히도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뮈텔 주교의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경쟁의식의 한 예가 그것이다. 「서울敎區年報 I」, 1987, p.62. 참조.

15) 金玉姬, 濟州島 天主敎의 受容 展開過程, 「耽羅文化」, 第6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7, p.177.

1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3. 그런데 俵孫一, 「韓國敎育の現況」, 學部, 1910, p.56이나 弓削幸太郎, 「朝鮮の敎育」, 東京: 自由討論社, 1923, p.73. 에는 사립학교령 공포후 한일합병 직전인 1910년 2월 현재 學部로 부터 인가를 받았던 종파별 도별 학교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주도가 속해 있던 全南 지역에는 학교가 전체 3개로서 장로교회가 2, 종파미상의 기독교계가 1이며 천주교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지 이유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한 개신교에 비해 가톨릭은 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여학교의 성공은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조선인 수녀들이 맡고 있는 여자 학교들은 그 학교가 세워진 곳마다, 비단 교우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외교인들로부터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여선생에게 지니는 애정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종류의 학교가 교구 내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두 학교가 다 가까운 장래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17]라는 드망즈 주교의 1913년도 보고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이다.

참고적으로 1913년 당시의 교육환경이란 「마치 민족의 재기와 자유독립의 조건인 것처럼 교육을 권장하던 운동도 이제 정치적 변혁들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은 종속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 아주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18]라는 드망즈 주교의 보고처럼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신성여학교의 성공은 더욱 돋보이는 것이었다.

당시 대구교구 내에 설립되었던 여러 학교들 가운데 대구와 제주 이외의 학교를 드망즈 주교는 "아무 곳에서나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잘것 없는 학교"[19]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베르모렐(Vermorel, 睦) 신부는 "정식학교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20] 학교라고 비하하여 표현할 만큼 대구 교구 내에서도 신성여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적 성공이 주목되는 학교였다.

2) 선생

라쿠르 신부는 여학교 관리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 부탁함과 동시에 2명의 여선생을 요청하였다.[21] 물론 라쿠르 신부는 앞으로 둘뿐 아니라 앞으로 서너 명의 수녀가 더 필요할 것[22]이라는 희망으로 두명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 라쿠르 신부의 신성여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라쿠르 신부의 요청에 따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서는 김 아나다시아 수녀와 이 곤자가 수녀를 제주도에 파견하게 되는데 1909년 11월 5일 그들은 첫부임의 장도에 오르게 된다. 선교지를 향해 출발한 후 이 곤자가 수녀는 독감으로 일주일간 목포에서 앓고 배를 타고서는 풍랑을 만나 다른 섬에 닿아

17)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敎區年報(1878-1940)」,부산교구, 1984,p.41.
18)「敎區年報(1878-1940)」,p.41.
19)「敎區年報(1878-1940)」,p.49.
20)「敎區年報(1878-1940)」,p.49.
21)「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p.231.
22)「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p.233.

일주일을 기다리는 등으로 인해 20일만인 11월 25일에야 제주도에 도착하게 된다.[23]

수녀들은 언어나 생활풍습의 차이로 처음에는 제주도 적응이 힘들었던지 특히 김 아나다시아 수녀가 심하게 앓기도 했지만[24] 곧 건강을 회복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수녀들의 가르침이 열성과 사랑으로 매우 헌신적이었던 까닭에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崔貞淑(베아트릭스)의 회고에 의하자면 「신성여학교에 들어가서 신부님과 수녀님에게 교육을 받으며 많은 감화를 받았다. 특히 수녀님의 신성하고 고결한 인품과 자애로움을 동경하여 나도 수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2세때 영세를 받았다.」[25]고 하였다.

허요안나의 회고[26]에 의하면 김 아나다시아 수녀는 교회나 학교의 살림을 맡아보았고 이 곤자가 수녀가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던 이 곤자가 수녀는 성격이 불같았다고 하는데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엄격한 스승의 전형이었던 것 같다. 엄격한 스승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학생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 곤자가 수녀는 바로 그러한 원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최정숙의 회고에 의하자면 신부에게도 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표현은 신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요안나의 회고에 의하면 신부는 직접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한다. 사실 충북 제천의 베론 신학당의 경우는 신부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신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신부가 직접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개신교의 목사들이 직접 가르침의 활동에 뛰어든 데 비하자면 신부들의 교육활동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차이는 곧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리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녀들의 활동은 더욱 주목될 수밖에는 없었는데 1910년도 뮈텔 주교의 보고서에도 「더구나 수녀님들의 본보기로 교우들 가운데 새로운 열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27]라고 기록되고 있으며 라쿠르 신부의 편지글에도 「수녀님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8]고 지적한 것만으로 미루어 보아도 당시 두 수녀의 헌신이 어느 정도 였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12년 제주도를 방문한 드망즈 주교는 「불쌍한 사람들 곁에서 거룩한 자비를 베푸는 방편 중에서도 외로운 이곳에서 일하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두 조선인 수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

23) 한국샬트르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한국 샬트르 수녀회 100년사」,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1991,p.985.

2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p.235.

25)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1970.

26) 허요안나(91세), 서귀포시 서홍동 244번지. 이하 허요안나의 회고는 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27) 「敎區年報(1878-1940)」,p.382.

28)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p.253,

다. 그들은 그곳에 오느라 대단히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그곳을 떠나려면 더욱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29]라고 두 수녀의 헌신에 대해 특별히 애정 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다.

학생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남자선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다. 「수녀들은 최고의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남자 선생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남자 선생은 돈을 너무 바라고 적격자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권위도 없습니다. 또 수녀들의 마음에도 안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을 구하고 있습니다.」[30]라는 1915년 김양홍 신부의 편지를 보면 1915년경에 접어들면서 수녀들 이외에 남자 선생도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생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녀들에 비해 재직 중인 남자 선생은 신부에게나 수녀들에게나 심지어는 학생들에게조차도 교육적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다른 남자 선생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남자 선생으로는 1914년 3월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그 해 4월부터 唐津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천주교를 전교하다 군수와 교장이 이것을 막자 불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면 전직시키든지 면직시킬 것을 요구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된 신자 曺元煥(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론[31]되기는 했지만 성사는 되지 못하였다. 성사가 되지 못한 것은 조원환의 사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1916년의 신성여학교 폐교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洪斗均, 高元鳳, 高性保, 文在憲, 高分道, 鄭若光 등의 제주도 남자들이 신성여학교에 활동했다는 기록[32]은 냉정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이 김양홍 신부의 지적대로 돈을 너무 바라고 적격자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권위도 없던 인사[33]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지적이라는 것이 신부 개인의 편견에 의한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합당한 남자 선생을 구하고자 하는 신부의 바램이 노골화된 면도 없지 않지만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34]에서 그들의 교육활동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일견 김양홍 신부의 지적을 긍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3) 교사(校舍)

「비에모 신부는 그 학교로 쓰일 집을 방문했고 그의 새 용도에 적합한 몇 가지 정비를 하면 그 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35]라는 라쿠르 신부의 편지를 보면 校舍 마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29) 「敎區年報(1878-1940)」, p.27.

3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63.

3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63의 註 6) 참조.

32) 濟州道敎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敎育史」, 濟州道敎育委員會, 1979, p.69.

33) 註30)참조

34) 拙稿, 日帝下 濟州島 敎育史 硏究, 「韓國敎育史學」, 第19輯, 韓國敎育學會 敎育史硏究會, 1997, pp.251~275, 參照.

35)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1.

것 같다. 이렇게 학교로 쓰일 집은 이미 구해놓기는 했지만 1910년 당시의 값으로 친다면 100엔도 되지 않았고 공간도 협소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옛날에 좌수의 집이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수녀원과 인접해 있는 제주시 3도 1동 상청골 소재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라쿠르 신부는 영사관이나 통감부에까지 편지를 써보낼 계획[36]을 세우는 등 동분서주하였다.

당시 라쿠르 신부는 가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舊右面 今岳里 지역에 소나무 밭을 하나 매입했었는데 관청에서 전신주를 만들기 위해서 라쿠르 신부의 소나무 25그루를 벌목하고는 1주당 2냥50전으로 무마하려던 사건이 벌어졌었다.[37]제주도 여러 지역의 소나무 값을 비추어 보건대 1주당 적어도 20냥에서 30냥은 되어야 한다는 라쿠르 신부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濫價라는 관청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38] 이 소나무 값 대신에 상청골 소재의 향청 땅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낼 계획이었던 것이다.

「제 나무 값 대신에 저는 집 한 채를 얻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나무 값을 받든지 아니면 그 대신 집 한 채를 받든지 하도록 주교님께서 영사관에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카오치 씨의 제안이 실현을 보게 된다면 저는 제주읍 안쪽에 있는 병문골 도로가 위치한 향정이라는 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9]라는 내용으로 보아 라쿠르 신부의 요청은 별 진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집에 대한 요구는 집요하였다.

라쿠르 신부는 1주당 2냥 50전으로 해결하려는 관청측 특히 당시 제주목사 조종항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목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프랑스 영사의 개입을 간곡히 바라고 있던[40] 처지였다. 그런 와중에 일본 경찰 측도 이 제의를 도와주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학교건물과 수녀원을 개조하는데 약 550엔을 지출했습니다. 제 나무에 대해 말하러 왔던 순검이 제가 대신 요구했던 큰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네 신부와 김 신부가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을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이 집의 지붕에다 성 베네딕도의 메달을 던졌는데 이 집의 지붕은 그녀들의 부엌 지붕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요컨대 저는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41] 라는 편지로 미루어 볼 때 갖고자 하는 집은 이전에도 사용했던 적이 있으며 수녀원과 맞닿아 있어 학교 건물로 확장하기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알 수

3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7.

37)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09.

38) 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2집,「신축교안과 제주천주교회」, 천주교제주교구, 1997, pp.285~289.

39)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47.

4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09.

4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51.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제주읍의 주요 인사들이 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을 할 모양입니다. 게다가 군수와 그곳의 일본인 우두머리가 저의 요구에 호의적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42]라는 라쿠르 신부의 편지가 그것을 반증한다. 이어서「그것을 수녀원이나 학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0엔이 필요할 것입니다.」[43]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 집이라는 것이 현재의 교사가 100엔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교사 보다 대충 2, 3배 정도의 큰 규모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개신교는 학교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 · 인적 자원을 미국 선교본부로부터의 원조와 학생들로부터 받은 공납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지만 그와 달리 천주교는 대부분 빈곤자를 위한 무료교육이었고 평신도 가운데서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부족했던 탓[44]으로 신성여학교가 교사 확장[45]에 애로를 겪는 것처럼 그 자체가 난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 타케 신부가 드망즈 주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수녀님들은 그들의 학교에 대해 무척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라쿠르 신부가 그녀들에게 작은 기숙사 하나를 만들어 주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46]라고 하여 학교시설이 기숙사까지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학생

학생 모집에 대해 최정숙의 회고에 의하자면「제주도에 처음으로 구마셀로 신부가 여학교를 세워 아버지인 최원순 검사와 같이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딸들을 보내주도록 간청했고 서울에서 수녀 두분을 초빙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학생들을 모집,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공부를 시켰다.」[47]고 하여 개별 방문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인 학생수가 1910년 5월경에는 40명에 이르게 된다.[48]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40여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일본인 여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던 상황에서 유지되던 인원이

---

42)「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65.

43)「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65.

44) 배효식,"구한말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비교연구",수원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p.57.

45) 자료집 상으로는 상청골 소재 향청 땅의 불하여부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 아마도 1916년 폐교 전까지는 이 문제의 해결이 안된 것 같으며 후일 이 땅이 신성재단의 소유가 된 점으로 미루어 신성여자중학원이 개교한 1946년 정도에 땅 소유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6)「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71.

47)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濟南新聞」, 1970.

48)「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49.

라는 점이다. 일본인 여학교로 빠져나갔던 학생 7명 가운데 1명은 되돌아 왔는가 하면 당시 일본인 여학교의 재학생 수가 25명이었다[49]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성여학교의 인지도가 나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주도에는 1903년에 학당 수준의 여학교가 있었고 그런가하면 1908년에는 개신교계의 여학교가 역시 활동을 했고 1909년 신성여학교가 개교를 했으며 1910년에는 일본인 학교에 25명의 여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여자교육이 적어도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매우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교육론이 온 국민의 관심 아래 가장 고조된 것은 1905~1910년경이었고 이 시기에 京外에서 유지들이 사재를 聚斂하여 200여개의 여학교를 설립 운영[50]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제주도 역시 그러한 여성교육론의 추세와 적극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1909년경에 찍은 사진을 참고해보면 학생 수는 모두 44명인데 그들의 면모를 보면 대개가 유아반 그리고 보통학교 초급반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 라쿠르 신부의 편지에 의하면 20세가 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지만[51] 사진을 판독해볼 때 20세가 넘었으리라 판단되는 학생은 두어명 정도로 보인다. 신성여학교 체제가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1년이었다고는 하나 이 체제는 후일에 가서 정비된 것이며 초창기에는 유아 및 보통학교 초급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정숙은 「나는 부친의 손에 이끌리어 佛國人 구마셀로 신부가 사재로 세운 신성여학교에 8세때 입학했다.」[52]고 회고했으며 허요안나 역시 9세때 입학하였노라고 회고한 것만은 보더라도 분명 신성여학교의 성격은 초등교육 수준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제주도 초등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신성여학교는 조망되어야 한다. 신성여학교에 관한 대개의 언급이 중등교육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신성학교를 염두에 둔 탓으로 보이며 신성여학교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등과정 보다는 초등과정에 대한 언급이 우선이라고 하겠다.

1909년 7월에는 학생수가 50여명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를 보고하는 라쿠르 신부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주읍에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소속의 여학교에는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말고도 어린 이교도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와 신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학교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제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 저는 이교도들이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53]

---

49)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49.

50) 朴容玉, 「韓國近代女性運動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45.

5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3.

52)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0.

학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라쿠르 신부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라쿠르 신부는 「왜냐하면 그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척 많은 이교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53]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사제들을 괴롭히던 최대 현안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뮈텔 주교의 1900년도 보고서에도 「제주도에서 부딪히는 아주 유별난 전교의 장애는 원주민의 반야만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입니다.」[54]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03년도의 보고서에서도 「반야만적인 관습과 도덕관념이 희박한 이 섬사람들을 참된 신자로 만든다는 것은 특별히 힘든 일입니다.」[55]라고 거듭 같은 논조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제들이 묵도한 반야만적인 관습이란 대체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 뮈텔 주교가 「자기들끼리 조합을 이루는 무당들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온 섬 안에 퍼져 있습니다. 수많은 옛 고객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은 우리를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잃게 하기 위해 갖은 모함을 다했습니다. 」[56]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우선 무속의 폐해가 대표적이었던 같다.

그밖에 「놀랍게도 쉽게 결혼이 맺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므로 합법적인 결혼을 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57]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결혼 관행 또한 문제로 여겼던 것같다. 그런가하면 「미신, 술, 노름, 여자 등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58]라는 뮈텔 주교의 말대로 생활세계 전반이 장애물 투성이였다.

그러나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디모테오Ⅱ, 4:2)라고 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라쿠르 신부와 두 수녀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그 결과 뮈텔 주교의 191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50여명의 어린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대부분 외교인 자녀들입니다. 많은 편견이 사라지고 학교 어린이들은 천주교에 끌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거기에서 개종자가 나올 것입니다.」[59]라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학생수는 증가하는데 드망즈 주교의 1912년 보고서[60]에 의하면 학생 수는 60여명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생의 대부분이 외교인 자녀들이라는 점인데 허요안나의 회고에 의하면 천주교에 관심이 없거나 설혹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식을 공부시킬 요량으로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53)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53.

5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55.

55) 「敎區年報(1878-1940)」, p.351.

56) 「敎區年報(1878-1940)」, p.364.

57) 「敎區年報(1878-1940)」, p.356.

58) 「敎區年報(1878-1940)」, p.351.

59)명동천주교회, 「서울敎區年報(Ⅱ)」, 1905년도 보고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24.

6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247.

61) 「敎區年報(1878-1940)」, p.27.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어린 여학생들을 개종시키는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학교 허가를 내주었던 정부측의 처사와 맞아떨어지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천주교에 관심이 없거나 설혹 반대하는 외교인들이 자식들을 천주교 학교에 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외교인들이 천주교 학교에 자식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이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시 신성여학교 명성은 공립학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신성여학교를 보존하기 위해 애썼던 金洋洪(스테파노) 신부는 「이 학교는 현재까지 좋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의 외교인들도 거의 모두가 그들의 딸들을 공립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62]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외교인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가톨릭은 '훌륭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니 싹이 돋아나고 말 것'[63]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성여학교를 통한 선교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교육에 열의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그런 열의만큼 학생수는 증가했고 그것은 곧 교우수의 증가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양홍 신부는 「학생은 70명으로 거의가 다 외교인이지만 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64]라고 하였던 것이다.

학교의 명성은 다른 누구보다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들게 된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신성여학교의 "명성"을 시샘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 대한 악의는 남녀 학교들의 교감의 소행이었던 것 같습니다.」[65]라는 라쿠르 신부의 편지를 보면 일본인 교감의 소행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 관리의 조종으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신성여학교의 명성이 그만큼 컸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학 때는 교회 마당에서 남녀 학생들이 어울려 소란스런 만세소리를 되풀이하며 정구를 쳤는데[66]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라쿠르 신부로 하여금 학생 수에 대해 집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기회만 닿으면 남녀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보고자 마음을 먹기도 했었다.

「지금 제주에 있는 공립학교에는 학생이 400명 이상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저를 무척 보러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방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물자들을 갖고 있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해 아직도 200 내지 250엔과 다른 물건들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게는 한푼도 없으니 이런 방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일년 내내 금주하고 금육할 것입니다.」[67]라는 편지 내용이 그것을 반증한다.

62)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63.

63) 「敎區年報(1878-1940)」, p.16.

6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63.

65)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51.

6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73.

라쿠르 신부가 지적하는 공립학교란 1906년의 「보통학교령」을 계기로 1907년에 개교를 한 제주공립보통학교가 틀림없는데 400여명의 재학생은 1910년 당시 50여명이었던 신성여학교 재학생 수와는 비길 데 없는 규모였고 따라서 라쿠르 신부는 재학생수의 확대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1914년도의 보고서에 「그들(대구와 제주도) 학교의 학생 수는 전자가 33명, 후자는 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68]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학생수의 증가세는 꾸준했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 6월 라쿠르 신부가 전주로 옮기게 되면서 신성여학교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학생수가 69명이며, 라쿠르 신부의 뒤를 이어 6월 7일 부임하게 된 김양홍 신부에 의하면 70명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5) 교육내용

신성여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분명치 않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허요안나의 회고에 의하면 한문, 일어, 국문, 산술, 수신 5개 과목이었다.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은 여성교육의 범위를 기초교육의 범주에 제한시키고자 했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국문, 한문, 산술, 역사, 지리 등을 제시하면서도 여성은 실제 생업에 필요한 청소, 세탁, 유아교육법, 비단 짜는 일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69]하였는데 천주교 선교사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여성교육관은 신성여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쿠르 신부의 편지에 초창기 모집 학생들 가운데 「20세가 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에 시작했던 한자 공부를 끝마치기를 바랄 것입니다.」[70]라는 것으로 보아 한문은 초창기부터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르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신성여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정부 또한 관심을 갖고 교과서 공급을 약속[71]했던 모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의 초등교육 교과목으로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리역사, 이과, 도화, 체조, 수예에다 시의에 따라 창가, 수공, 농업, 상업 중 한과목이나 몇 과목을 더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의 교과서 공급이 약속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교과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같다.

드망즈 주교의 1912년 보고서에 「교회로 사용되는 아주 작은 방에서 오르간에 맞춰 소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 그들 학교의 60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은 교리문답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잘 파

67)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59.

68) 「敎區年報(1878~1940)」, p.49.

69) 「경향신문」, 1908년6월12일, p.346.

7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33.

7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67.

악하고 있습니다.」[72]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성여학교 학생들에게 교리문답과 함께 노래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노래를 가르치는 장면은 기록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형편에서 오르간을 가지고 노래를 배웠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방학 때는 교회 마당에서 정구장을 설치해 놓고 남녀 학생들이 어울려 소란스런 만세소리를 되풀이하며 정구를 쳤음[73]을 볼 때 비록 그것이 판자조각과 하나의 고무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정구와 같은 구기 교육내용도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에 정구코트가 처음 선보인 것이 1912년 제주공립농업학교 코트[74]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에 신성여학교에도 정구가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구 효시가 1908년의 度支部(현 재무부)였음을 감안해볼때 제주도의 남녀 학교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정구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14년도의 드망즈 주교의 보고서에는 대구교구 내에서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대구와 제주 이외의 학교사정에 대해 「그밖에 다른 학교들은 아무 곳에서나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학교들입니다. 한 처녀가 아니면 과부가 읽고 쓰는 일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바느질과 가사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75]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형편이나 활동이 활발한 신성여학교에서는 적어도 읽고, 쓰는 일 그리고 바느질과 가사는 물론 그 이상의 교육내용들이 가르쳐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폐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선교사들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참가를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소집되는가 하면 교구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제주도의 선교사들을 육지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라쿠르 신부 외에 타케 신부가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다.

두 신부는 당시 일본인이 경영하던 영자신문인 '서울 프레스'를 통해 독일의 프랑스 침공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76] 이에 따라 타케 신부는 1914년 말에 일단 전쟁에 소집[77]되고 라쿠르 신부는 1915년 6월 7일 전주로 옮기게[78] 된다. 일단 라쿠르 신부가 제주도를 떠나게 됨으로써 신성여학교는 치명적인 타

72) 「敎區年報(1878~1940)」, p.27.

73)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73.

74) 梁朴勳, 「濟州體育史」, 조약돌, 1984, p.39.

75) 「敎區年報(1878~1940)」, p.49.

7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79.

77) 그 후 소집이 연기되었고 이듬해 징집면제를 받았다.

78) 이후의 라쿠르 신부는 소집된 카넬(Canelle, 閔弘模) 신부 대신 목포본당의 사목을 맡고 있다가 1916년 5월 27일 군 입대차 본국으로 귀환, 페네(Peynet, 裵) 신부와 함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1929년 8월 11일 선종 하게 된다.

격을 받게 되는데, 라쿠르 신부에 이어 김양홍 신부가 6월 7일 제주읍에 부임하면서 「장래의 희망은 여학교를 보존하는데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79]라고 호소하고 신성여학교의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정은 호전되질 않는다.

신성여학교는 이로부터 1년여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이 되다가 일제당국이 校舍 명도령을 내림에 따라 무기휴학이 되고 결국 1916년 7월 25일 자진폐쇄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신성여학교를 위해 가장 애썼던 김 아나다시아 수녀와 이 곤자가 수녀도 눈물을 머금고 동년 7월 27일 서울 본원으로 귀환을 하게 된다. 그 후 校舍는 일제당국이 강점, 일본인 본원사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유골 안치소로 변하게 된다.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년 전부터 두 선교사에 의해 복음화된 제주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어 번창했던 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80]라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소식을 전하는 드망즈 주교의 보고는 비감하기만 하다. 이러한 사실이 충격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구교구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교 가운데 하나가 신성여학교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쟁이 발발된 당시만 하더라도 신성여학교의 운영을 보며 학교 설립에 뜻을 둔 샤르즈뵈프(Chargeboeuf, 宋) 신부 때문에 빚어진 갈등만 보더라도 학교 운영이 매우 양호했었음을 보여준다. 즉 샤르즈뵈프 신부는 신성여학교 후원자에게 운영이 양호한 신성여학교를 원조해주는 대신 목포에 학교 세우는 일을 도와주도록 부탁을 함에 따라 신성여학교에 약속되었던 원조가 중단되기도 했던 것이다.[81]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던 학교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선교사들의 이동이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일제의 학교 탄압정책 때문이었다. 일제는 특히 신성여학교와 같은 사립학교를 통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령」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단계의 사립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들이 이 법령 밑에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들 때문에 「교육사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들은 우리를 속수무책의 궁지로 몰아 넣습니다. …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고난으로 선교사와 교우들은 거의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82]라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최정숙의 회고에 의하면 신성여학교 폐교에 대해 「동기는 소위 경영난이란 핑계를 대었지만 프랑스 신부 구마셀로가 전주로 전근되어 기회를 노리던 일본관헌들이 강압을 가한 것이다. 이 때 나는 진명여고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학부형들도 학교의 재건을 꾀하였지만 정책적인 탄압에는 대항할 수

79)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63.

80) 「敎區年報(1878~1940)」, p.69.

8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281.

82) 「敎區年報(1878~1940)」, p.61.

가 없었다. 심지어는 校舍까지 몰수해 버렸다는 것을 뒤에 들었다.」[83]고 하여 정책적 탄압을 강조하였다.

1922년 9월 23일 사제로 서품된뒤 9월 24일 나주의 노안 본당 겸 서귀포 홍로 본당의 제5대 주임이었던 李京萬(요한) 신부는 「적어도 여학교를 통해 이 지방들을 개화하는 것. 이것이 특히 저를 매우 자극합니다.」[84]라고 하여 신성여학교가 폐교되고 나서도 제주도 지역의 전교를 위해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교를 갈망했지만 그 꿈은 성사되지 못하고 해방이 되고 1946년이 되어서야 스위니(Leo Sweeney) 신부에 의해 복교된다.

3. 마치며

신성여학교의 존재는 일제하 제주교육사를 풍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계의 주도로 이루어진 학교라는 일정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여성교육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가톨릭교육사 맥락에서는 대구교구 내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도 신성여학교의 존재는 주목을 요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성여학교가 설립되기 6, 7년전에 이미 사설학당 수준의 여학교가 존재했으며, 그것이 신성여학교의 개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신성여학교에서는 초등교육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성여학교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일제의 정책적 폐교조치가 있기까지 도민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당시 대구교구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83) 최경숙,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0.

8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153.

참고문헌

「京鄕新聞」,1908.

명동천주교회,「서울敎區年報(Ⅱ)」,1905년도 보고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朴容玉「韓國近代女性運動史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배효식,"구한말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비교연구", 수원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1992.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敎區年報(1878 -1940)」,부산교구, 1984.

「사망선교사약전」

梁祚勳,「濟州體育史」,도서출판 조약돌, 1984.

金玉姬, 濟州島 天主敎의 受容 展開過程,「耽羅文化」,第6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7.

濟州道敎育史編纂委員會,「濟州敎育史」, 濟州道敎育委員會, 1979.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2집,「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천주교제주교구,1997.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3집,「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천주교제주교구,1997.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4집,「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천주교제주교구,1997.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濟南新聞」,1970.

한국샬트르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한국 샬트르 수녀회 100년사」,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1991.

弓削幸太郎,「朝鮮の敎育」,東京:自由討論社, 1923.

俵孫一,「韓國敎育の現況」,學部,1910.